

건강 칼럼

불러도 대답 없는 우리 아이, 혹시 자폐증?

마치 자신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것 같다고 하여 이를 불어진 자폐증은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정서적인 유대감도 일어나지 않는 아동기 증후군으로 사회 기술, 언어, 의사소통 발달에 있어 지연이나 비정상적인 기능을 보이는 신경발달 장애이다. 최근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는 자폐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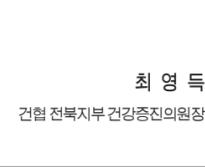
◇자폐 스펙트럼 장애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뇌의 발달이나 성장장애를 일컫는 신경발달 장애의 한 종류이다. 이 질환의 원인은 과거 60년대만 해도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생물학적 결함이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관련 연구가 많아지면서 점차 진료와 진단을 받는 환자도 많아지고 있다.

과거 5가지 전범적 발달장애인 자폐장애, 아스퍼거 장애, 전반적 발달장애, 랫트 증후군, 소아기 불규칙 장애를 현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통일하여 부르고 있다. 이 질환의 핵심은 사회적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이 떨어지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흥미, 활동

패턴을 보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헤아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읽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맺음이 잘 되지 않는다.

또한 융통성 없이 별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며 상동언행이나 자기자극행동에 몰두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지시를 잘 따르지 않거나 무절제하게 보이고 이타행동이나 신기한 행동을 보여 사람들로 부터 더욱 더 소외되고 멀어지게 된다. 감각적인 자극에 과하게 반응하거나 약하게 반응하여 주변에서 아무리 불러도 안 들리는 것처럼 행동하고 시계초침 소리에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한다. 전정자극을 좋아하는 경우라면 끊임없이 빙글빙글 돌거나 제자리 뛰



최영득  
전주복지부건강증진지원장

기를 반복하기도 한다. 까치발로 자주 걷는 것도 이에 해당이 된다. 감정이나 정서적인 불안정이 있어 이유 없이 갑작스런 기분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갑자기 울거나 웃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

◇영유아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증상

▲눈 맞추어 안 된다. ▲포레에 관심이 적다. ▲다른 사람을 잘 쳐다보지 않는다. ▲포레와 함께 놀지 않는다. ▲가상 놀이가 잘 안 된다. ▲이름을 불러도 반응을 잘 안 한다. ▲소리나 웃음, 시작자극에 예민하거나 둔감하다. ▲손이나 손가락을 흔드는 등 부적절한 반복행동을 한다. ▲다른 사람의 몸을 도구로 사용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치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 질환을

가진 사람이나 가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 나타난 결과물이 아니다. 하지만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주변 가족들이 가지는 공통은 짐작이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 처음 이 질환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는 할 수 있는 치료가 정신치료나 놀이치료뿐이었다. 하지만 그 치료가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후 많은 연구와 치료법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아직 완치가 되는 치료법이 없다. 다만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결함을 줄이고 의사소통인 사회기술을 향상시켜 좀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넓혀가게 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적응해 나가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치료목표가 된다. 최근에는 각 개인의 특성에 맞춰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이 개입하는 개별화 프로그램이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기부터 응용행동분석(ABA)과 같은 교육적인 행동치료 체계에 갖추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환경적인 변화나 약물 치료법으로 인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미래가 조금씩 밝아지고 있는 것이다.

독자제언

'불법촬영' 유통망 SNS 규제마련 시급

최근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 내부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유포되면서 불법촬영 범죄의 공포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촬영 자체만으로도 위법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영상이 SNS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 역시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사건 역시 건물 밖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3시간 이상 가량의 영상이 소셜미디어 '텀블러'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성폭행 모의, 리벤지 영상 등의 자극적이고 글이 끊임없이 게시되고 있다. 2007년 설립된 텀블러는 전 세계 1억 17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세계적인 소셜미디어로 글과 사진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곳이지만 별다른 성인 인증이 필요 없는 탓인지 성매매와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 등 각종 음란물의 유통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도 텀블러가 2만 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성매매·음란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성매매·음란, 자살 등 불법정보에 대해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이 대책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텀블러'는 대한민국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다는 협회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이다. 해외사이트라는 이유로 두 손 놓고 있기에는 SNS 유포 등 성범죄 2차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텀블러와 같은 외국 기업에도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규제로 더이상 SNS가 성범죄의 유통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바란다.

김소정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유가 인상때문에" ... 브라질 트럭운전자 파업



브라질의 트럭운송업체가 유가 인상에 반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25일(현지시간) 두케 지 카사스에서 한 트럭운전사가 말을 타고 동료들의 고속도로 점거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파업이 8일째 계속된 28일 현재 전국의 학교 수천 곳이 문을 닫았고 주유소마다 긴 줄이 늘어섰으며 많은 항공편이 취소되었다.

사위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인구 감소 해결책을 찾아야

전북도는 생각해야 할 것이 많다. 그 중에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게 인구 감소의 문제이다. 지난해 많은 인구가 줄었는데 보통 일이 아니다. 재작년에도 전국에서 우리 전북의 인구 감소 폭이 제일 컸다. 전북도는 인구의 감소와 관련하여 고민해야 한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금도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데 속수무책은 보기에 안 좋다.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행정자치연보'를 보면 전북의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매년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역전될 기미가 없다. 전북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까닭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두 해 전부터 그런 게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그러고 있다. 전북도는 혁신도시가 인구 증가 요인이 된다고 말했지만 그건 희망 사항일 뿐이다. 그런데 실상가상 이 대폭 삭감돼 반영됐다. 정말이지 이런 식이라면 군산 지역 인구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전북도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뭇무리 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예산 6조2945억 반영 만족스럽지 않아

전북 발전은 예산 증액이 말한 다. 대폭 증액된 예산 확보가 없다면 발전 계획은 무용하다. 아무리 거창하게 공포를 했다해도 그것은 그렇다. 전북도가 증액된 예산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하기에 하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 다시 또 할 말이 있다. 군산 안정을 위해서 말했던 투 트랙 전략이 어찌 이상하다. 지금은 행방이 묘연한 까닭이다. 소리의 크기는 요란했는데 현실은 오히려 퇴보를 보여주고 있으니 허탈하다. 전북도는 공포에 걸맞게 예산 확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겠다. 전북도가 내년도 부처별 예산 6조 2945억 원을 확보한 것을 두고 성과를 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공감할 수 없기엔 아직 이르다. 좀 더 분석하고 생각할 부면이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개발비가 늘고 신규 사업인들이 반영된 것에 포커스를 맞추자면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짙은 법이라는 말 그대로 국책사업비 내용이 어찌 이상하다. 산업위기 지역 지정이 무색하게 군산이 찬밥 신세이니 말이다. 군산 산업구조 개편비가 72%나 삭감됐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대신 공

시 발전 쪽에만 미련을 둔 채로 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 전북이 늙어가고 있다는 진단은 허튼 것이 아니다. 이제 전북은 고령자들의 고장이 돼 버렸다.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이만 고장을 지키고 있으니 지역의 현실이 딱하다. 청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거창한 미래 비전 제시가 아니다. 당면 문제 해쳐 나가기가 훨씬 더 절실하다. 전북도는 거창한 이상보다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써야 한다.

180만 명 선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불안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인구 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서 군산 지역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기대하는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있던 일자리마저 뭉터기로 사라져버린 현실에 군산시민들은 정신이 사납다. 그런데 이번엔 군산 안정을 지원금이 대폭 삭감돼 반영됐다. 정말이지 이런 식이라면 군산 지역 인구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전북도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뭇무리 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약 사업비도 그렇다. 행정 절차가 늑장의 연속인데다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면 88%나 가워질 뚫다니 어이가 없다. 본보는 이번 추경 예산이 당초 상정한 것보다 증액된 것이라해도 그에 의미를 줄 수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 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생각하면 그 정도로는 약과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해와 올해 이나연 총리가 말했던 발언들에 끝이없도록 믿음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나연 총리는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책을 찾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조치를 강구하겠다" 등등의 말을 했지만 군산 경제의 몰락 이후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기대했던 군산 지원액이 대폭으로 삭감된 지금 허탈함을 여기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노력해야 한다. 지역의 낙후를 떨쳐버리려면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더 설득해야 한다. 군산경제를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걸 위해서 도지사를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은 힘써야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